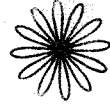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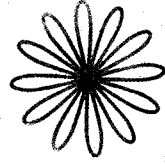


몸과 마음으로 실천하는 한글사랑



볼수록 아름다운 스물 녀자는 / 그 속에 모든 이치 갖추어 있고
누구나 쉬 배우며 쓰기 편하니 / 세계의 글자 중에 으뜸이도다
한글은 우리 자랑 민주의 근본 / 이 글로 이 나라의 힘을 기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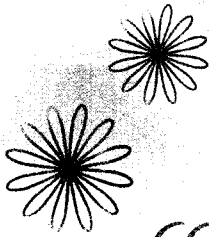


이는 최현배 선생이 글을 짓고 박태현 님이 곡을 붙인 <한글날 노래>의 2절 부분이다. 새삼 한 구절 한 구절을 꼭꼭 새기며 노래를 다시 불러본다. 1990년 이전까지는 국경일이고 당연히 공휴일이었던 한글날, 그 시절엔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정갈한 마음으로 태극기를 바라보며 이 노래를 불렀다. 세종대왕과 세계 최고의 아름다운 말글을 가진 우리 민족을 더없이 자랑스러워하면서 모두 그렇게 성장했다. 그러나 1990년,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돼야 하는데 왜 자꾸 놀려고 하느냐면서 정부와 국회와 재벌들이 손을 잡고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빼버렸다. 그로부터 '한글날'은 공부에 짓눌린 학생들의 마음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는 직장인의 마음속에서 그저 흘러가는 기념일의 하루쯤으로 관심 없이 스쳐지나갔다.

그 이후 우리 사회는 영어몰입교육이니 세계화니, 모든 삶의 질이 생략된 자본시장의 목표만으로 저울질 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살벌한 경쟁사회로 내몰렸다. 사람들은 끝 없이 낯선 영어와의 싸움에 쫓기고 지치면서 열등의식과 좌절의 불안한 시대를 건너고 있다. 이 시대는 주류에 속하는 지름길이 영어이고, 돈도 명예도 영어를 넘어서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고 으박지르고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한글날'이 돌아왔다. 그나마 다행스럽게 많은 사람이 애쓴 덕분에 563돌인 지난해부터 '한글날'은 공휴일은 아닌 채로 다시 '국경일'이 되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글자를 읽고 쓰는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고, 정보 기술의 발전 속도 또한 다른 나라를 훌쩍 앞지르는 것이 우리말, 우리글로 이룩한 문화의 힘 덕분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말글 환경은 건잡을 수 없이 어지러워지고, 마침내 정부 행정부처나 공공기관이 오히려 앞장서 우리 말글을 망가뜨리고 말장난을 하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다가 지난해와 올해 반갑게도 새로운 구심점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하나 둘 생겼다. 광화문 광장 가운데 '세종대왕' 동상이 모셔졌다. 그곳을 찾는 시민은 멀리 찾아 나서지 않고도 가깝게 성균의 통치철학과 백성을 사랑한 진정한 지도자상을 되새기면서 긍지와 자부심을 담아갈 수 있게 되었다. 또 정부는 용산 국립박물관 옆에 한글의 탄생과 발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한글박물관'을 만들고 있다.

이처럼 겉으로 드러난 굵직한 일들만 보면 우리 말글에 대한 정부, 국회, 기업 등 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끄는 집단의 생각이 많이 바뀐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구체적 내막을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어리석은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가 정말 아끼는 애뜻한 단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은 가장 명확하게 우리를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을 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고 아름다운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말글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희망과 기대를 모으며 수도 서울의 심장부라 할 수 있는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이 모셔지고, 세종이야기 띠가 만들어졌다. 그러나 수많은 서울 시민이 찾아와 새삼 그 의미와 가르침을 되새기는 바람직한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세종대왕이 굽어보는 바로 발아래 서울시의 역점 사업인 '물 잔치' 광고가 로마자 울타리로 세워졌다. 그것을 본 우리는 그만 할 말을 잃었다. 서둘러 '한글문화연대'에서 일인 시위에 나서고, 그 주관단체와 광고공사에 항의했다. 그제야 그들은 당황해서 이런저런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행사 중간에 그 설치물들은 급히 뜯겼지만, 기관과 그 종사자들의 이런 앞뒤가 안 맞는 행태가 모처럼 기대에 부풀었던 많은 사람을 허탈하고 씁쓸하게 했다.

우리 '한글문화연대'에서는 지난해 끝 무렵, 전국 "공공언어 바로 세우기" 운동의 하나로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누리집의 구호(슬로건)를 조사하여 우리말 사랑꾼·해침꾼을 발표했다. 우리말을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잘 나타내고 좋은 느낌을 전달하여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만든 지자체를 사랑꾼(서울시 금천구의 "눈부신 금천",

서울시 중구의 “서울의 중심 중구”, 강릉시 “솔향 강릉”, 부산시 동래구 “얼썩 동래”,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행복 특별시”, 전북 순창군 “장하다 순창”, 전북 전주시 “한비탕 전주(세계를 비빈다)” 등으로, 외국어로 구호를 만들어 지역의 특색이나 지향점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구호를 해침꾼으로 발표했다.

대전시 유성구에서 새로 나누는 마을에 동 이름을 외국어로 짓겠다고 했다. 그걸 막기 위해 또 한글단체들이 나섰지만, 유성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되고 말았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낙담하고 있는 사이, 천만다행으로 다시 패기 있는 젊은 구의원들에 의해 재상정되었고 마침내 ‘테크노동’이라는 그 괴상한 동 이름은 취소되었다. 결국,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었다.

‘한글사랑’은 우리를 확립하는 일이고, 또 존재 이유기도 하다. 우리말에는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비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끼는 애뜻한 단어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그것은 가장 명확하게 우리를 말할 수 있고, 우리의 뜻을 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자산이고 아름다운 도구이기 때문이다.

알면 실천해야 한다. 머리로는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실천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한글 사랑’도 몸과 마음을 담아 실행에 옮겨야 나와 우리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사랑은, 지켜주고 보살피고 키워나가는 것이다. ‘사랑’은 ‘살다’와 ‘알다’가 만나 이루어진 말이라고 한다. 삶을 아는 것이 사랑이라는 뜻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 길 위에 함께 서 있어야 한다.

왜 우리말 우리글을 사랑해야 하는가? 우리말 우리글이니까 또, 내가 ‘우리’니까. †